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7호 [주제 제2591호]

주제 109  
(2020)년 4월  
25일  
토요일  
음력 4월 3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자력갱생으로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간다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언제나 비약의 원동력으로, 승리의 기치로 되어온 자력갱생.

공화국인민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강위력한 정신적 지주를 영험한 전통으로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본다.

타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주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라고 사후하시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백두산대학》을 찾는 답사자들이 손이 얼어붙고 귀부리를 도려내듯 한 강추위속에서 빠져리게 걸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항일투사들의 불같은 혁명열, 애국열과 함께 모든것을 자체로 해나간 자력갱생,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다.

적미축적, 정규부력건설 등 민족자력의 정신으로 이루어 놓은 세계적인 혁명들이 해방된 조국땅우에 국가건설의 주춧돌이 되었다.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된 영광스러운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의 엄숙한 선포, 그것은 동방에 태어난 첫 자주독립 국가의 힘있는 고고성이었으며 새 조선의 자주적번영의 출발을 알리는 금지높은 선언이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오늘도 력사의 땅 강산을 잊지 못한다. 세계적인 정치풍파가 일어나고 지배주의,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대오안에는 동요분자, 우연분자들이 본색을 드러내던 참으로 준엄한 시련의 해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강산을 찾으시어 강재 1만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신 열렬한 호소는 강선의 노동자들의 더운 피를 뚫어 주었다.

### 자력의 철리를 밝혀주시어

나라길에도 시작점이 있듯이 혁명의 길에도 출발점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서는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자력갱생, 이는 간고한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조선의 위대한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이 나라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앞당겨오는 자력자강의 철리를 밝히시고 령도의 전기간 드림없이 실천해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사대주의를 불사하며 거족적인 전진항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카를프의 예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는 강도 일제에게 모든것을 강탈당한 겨레에게 민족재생의 진로를 밝혀준 서광이었고 인류해방위업의 새시대를 알리는 력사의 조종이었다. 감회도 새롭다. 정규군의 지원이나 국가적 후방도 없이 발목까지 무장한 최후의 강도 일제와 정면대결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안아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긴 당부가 있다. 조선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절대로 《연길폭탄》을 잊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이다. 일제에게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었던 《연길폭탄》. 망치와 줄칼, 풍구 등의 도구밖에 없었던 백두의 원시림속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졌다는데 의의도 있지만 그에 비할바없는것은 유격대와 인민들이 자기의 거대한 힘과 슬기를 실제적으로 깨닫고 자기 운명을 능히 자체의 힘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을 통해 간직하게 한 정신력에서의 일대 전환의 계기였다는데 있다.

그때를 회고하시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만일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남의 나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자력갱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자력갱생만이 살길이고 조선을 구원할 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유격주에는 애당초 병기창이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라고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위력한 무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였을 것이라고 사후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강산을 찾으시어 강재 1만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하신 열렬한 호소는 강선의 노동자들의 더운 피를 뚫어 주었다.

천리마의 봉화는 강선에서 타올라 6만년력의 분피 앞면에서 12만년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은 나라에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기》라는 구호가 힘차게 나뉘는 속에 《승리-58》 자동차, 《천리마》 호 트럭도, 《붉은기》 호 전기기관차를 비롯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앞을 다투어 생겨났으며 그 나날에 남들이 백년 또는 수백년이 걸려서야 도달할 수 있었던 공화국의 력사적위업을 단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수하는 력사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제에 대해 프랑스의 한 저명한 기자는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할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사조마냥 재더미속에서 소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조선의 복귀와 건설일 것이다.》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모란봉기슭의 만수대에 세운 천리마동상은 시련에 굴복하여 남을 바라보면 노예로, 자체로 일떠서면 기적의 창조자, 승리자로 된다는 조선혁명의 철리를 만사람에게 새겨주고있다. 1970년대-1980년대의 평양번영기도 이렇게 태어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약적인 속도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며 수도 평양을 주체조선의 상징으로 훌륭히 변모시킨

### 자력의 기치밑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 수 있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력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 부강조국건설도

노래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가 사람들에게 주는 깊은 여운이 있다. 그것은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면서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천만고생을 다 이겨내시며 빈터우에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 인민의 락인을 일떠세워 주신 김일성주석에 대한 뜻 잊을 수 없다. 노래에도 있듯이 모든것이 빈터에서 시작되었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지고 새 조선을 일떠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보잘것 없는 경제와 텅 빈 국고에서 시작되었고 적대세력들이 100년이 걸려도 다하는 일에서 못할것이라는 두려움과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사업도 벼락 한장성한것이 없는 재더미와 폐

### 자력의 기치밑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 수 있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력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 자력의 기치밑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 수 있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력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 자력의 기치밑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 수 있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력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 자력의 기치밑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 수 있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력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 자력의 기치밑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 수 있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력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 자력의 기치밑에

허에서 시작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전후 3년만에 공업총생산액 2.6배장성을 예견하여 세운 5개년계획, 아직은 나라의 형편이 추지지 못한 속에서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이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위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힘, 자력갱생의 힘에 의거하여 뚫고나가시였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란봉극장과 천리마동상, 인민대학습당을 보면 우리 조국의 력사를 알 수 있었다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건설된 년대도 다르고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그 모든것이 자력의 힘으로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자력갱생의 실천적증

## 조국소식

### 콘크리트치기 50%계선 돌파, 골조공사 동시에 추진 평양 종합병원 건설장에서

대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는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응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대달리는 일군들과 지휘관,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기초콘크리트치기실적이 50%계선을 넘어섰으며 골조공사도 동시에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건설현황상무엇에서 공정별작업이 립체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력량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세멘트, 골재, 철근, 내수합판 등 건설자재를 선행시켜 작업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전개해나갔다.

일군들과 지휘관들은 건설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는 한편 앞선 공법과 능률적인 건설설비, 기공구들을 도입하여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콘크리트치기에서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적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 108돐 경축행사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15일 김일성문중학교에 높은 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중국합일혁명렬사 장을 화가주, 김일성문중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 위대한 인간, 인민의 아버이의 고결한 행복관

인민의 행복을 기쁨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보람으로 여기시며 위없는 현지도도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을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이 칭송하였다.

###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 칭송

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시였다.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 캄보자의 신문 《노코르 롬 데일리》와 에프엠 105방송,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은 많아도 김일성주석처럼 자신을 다 바쳐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오신분은 력사적 전무후무하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휴식이 있을수 없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데서 찾는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것이 주석께서 지니고계신 행복관이였다고 보도하였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

파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려하였다. 14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축모임에는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본부일군들이 참가하였다.

### 108돐 경축행사

박수축에 채택되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8돐 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 최수봉 제1부의장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이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있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벅찬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8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위대한 수령님의 향도 따라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라는 구호높이

# 즐거우게 이어지는 강군의 력사와 전통

공화국의 자위적무장력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들을 모시어 강군의 위용을 떨치고있다.

군대가 강하여 국가가 강하고 인민이 존엄높은것이다.

총대로 반제대결전에서 승리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 강군의 첫 패지를 쓴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다.

민족의 운명이 외세의 총칼에 의하여 지리멸렬되어가던 수난의 세월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항일대전을 선조한 조선인민혁명군은 발돋움하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여 민족재생의 영광을 안아왔다.

자주적운명개척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고 통성변명으로 가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첫걸음은 1932년 4월의 봄날에 시작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길림감옥에서 출옥하신 후 손정도목사의 집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목사는 그의 신상을 념려하며 일제의 민주침공이 시간문제라 되고있는것 같은데 장차 어떻게 할 작정인가

고 하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야 다른 길이 있는가고, 군대를 크게 조직해가지고 일제놈들과 결판을 내자고 천하고 옥중에서 굳히신 자신의 결심을 내비치시었다.

그이의 대답을 들은 목사는 대뜸 놀라와하며 총으로 일본과 맞서보겠다는건가고 되물었다.

그이께서는 그렇다고, 그 결박에야 다른 출로가 없지 않는가고 결연히 대답하시었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며 무장투쟁, 유격전을 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명월구회의에서 이렇게 확언하시었다.

우리는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땅국도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하더라도 이이께서는 무엇을 믿고 항일전쟁을 결심하시었던것인가.

인민을 굳게 믿으셨다.

인민을 국가로, 인민을 후방으로, 인민을 정규군으로 보시고 싸움이 일어나면 전민이 병사가 되어 일어날것

라는것을 믿으시고 무장투쟁을 결심하시었다. 유격전을 인민전쟁으로 보시었다.

력대로 남들이 유격전을 정규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보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것을 기본적인 투쟁형식으로 확정하신것은 당시의 구체적현실에 부합되는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결단이었다.

사람문제, 무기문제, 교련문제, 식량문제 등 많은 난문제를 해결하시며 혈전의 준비를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안도현 소사라의 토기점골동판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을 선포하시었다.

일제의 멸망을 선포하고 민족의 피라는 가슴에 재생의 희망을 안겨준 1932년의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속에 무르익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비행기와 땅과 같은 현대적무장장비를 갖춘 일제의 100만대군을 위락벼락하시며 섬멸적타격을 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시기에 유격구방어작전을 창조하시였는데 그것

은 당시까지의 유격전의 력사에 없는 독창적인 작전이었다.

두차례에 걸치는 북만린정과 여러차례의 국내전공작전들, 고난의 행군, 대부대선 회작전과 소부대활동을 비롯한 모든 작전들과 동녕현성 전투, 로호산전투, 무성현성 전투, 보천보전투, 감삼봉전투, 무산지구전투, 서강전투, 흥기하전투, 대사하치기 전투 등 대소전투들에서 천 번만화하는 유격전법들을 활용하시어 일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시었다.

유인대복전법, 기습소탕전, 동성서격전법, 이정화령, 이정화정전술, 일행전리전술, 망원전술, 신뢰전술 등 인민혁명군의 령활무쌍한 전법들에 의하여 일제의 《참비전술》, 《명공장추전술》, 《요점배치전술》, 《포위소탕전》과 같은 《로벌》작전들이 무용지물로 되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령도하신 항일대전은 정신력에서나 전략전술에 있어서 군대를 불패의 강군으로 건설하고 유격전으로 강대한 정규군을 다스린 혁명전쟁으로 세계전쟁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렇게 탄생도 사변적이고 공훈도 력사적이다.

나라를 해방하였다고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공복을 벗은것은 아니었다. 새 조국건설은 군대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하였다.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구발전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체없이 정규무력건설토선을 내놓으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록, 해, 공군을 다 갖춘 조선인민군이 창건된것이었다.

강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또 하나의 전



## 불패의 강군을 이끄시는 나날에

### 우리 식의 전법

언제인가 조선인민군 해군 종합군사연습이 있었을 때였다.

연습을 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걸은 로정을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의 혁명무력, 우리 군대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면서 싸워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식의 전법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식의 전법이란 우리 군대의 정치사

상적우월성을 바탕으로 발양하고 거기에 의거하여 어떤 제국주의강도도 무자비하게 때려부시는 혁명적인 전법이고 우리 군대의 체질과 우리 나라의 지형지물,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싸움을 벌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해를 보내야 한다시며**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훈련열풍을 일으켜

리는 독특한 조선식전법이 모든 최신과학원리와 전성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현대적인 전법이고 항일전쟁과 조국해방전쟁경험을 총화하고 그것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백전백승의 전법이라고 하시었다.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106(2017)년 4월 어느 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

밑에 인민군군인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격기대회가 진행되었다.

경대회를 지도하시며 군인들이 발휘한 전투적위력을 높이 치하하시어 원수님께서는 잘 훈련된 병사만이 싸움마당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울수 있으며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날, 천날을 땅과 함께 이어가는 군인이 참된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항상 전쟁의 날에 마음을 얹어두고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해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리 설

### 수필

# 산골역에서 본 사적비

얼마전 출장길에서였다. 수림속을 헤가며 달리던 뿔차는 어느 한 산골역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이곳에도 현지지도사적비가 있군요.》

내옆에 앉은 손님이 차창밖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였다.

차창밖에 눈을 던지니 정말 그 외진 산기슭에도 사적비가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곳이라는 글발이 안겨왔다.

깊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이 없던 차칸안의 손님이 이야기꽃을 놓았다.

《우리 농장에도 아버지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가 있지요.》

《수령님께서는 자그마한 우리 식로공장에 찾아오셨답니다.》

《정말 두에산골이나 벌방과 어촌 그 어디에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찾고찾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찌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결에 앉아있던 나는 그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인민을 위한 헌신의 현생을 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의 길은 끝이 없어 이 땅 어디에나 거룩한 그 자욱이 어리

여있지 않은 곳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찾고찾으신 현지지도단위수는 무려 2만 600여개. 그 날자수는 8 650여일에 달하며 그 로정의 총연장거리는 57만 8 000여km (144만 5 000여리)나 된다.

정녕 이 나라의 방방곡곡 어디에나 어리없는 애민헌신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길이 전하며 수많은 사적비들은 위인칭송의 기념비로 솟아 오늘도 빛을 뿌리고있는것이 아닌가.

동서고금을 엮는 뜨거운 은정과 고매한 덕성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헌신의 길을 새겨볼수록 새해전 찾아짐에 조국과 인민들이 엄숙한 맹약을 하신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어리어나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제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으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난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

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더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증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그이의 절절하신 음성들을 들으며 인민들은 크나큰 흥분으로 가슴속에서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걸고걸으신 사랑과 헌신의 길을 오늘도 또 한분의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끊이지 이어가시게는것이다.

몸소 타고다니신 그 안전성을 확인하신 마시평스키장의 삭도에도, 건설중인 려명거리의 초고층 살림집을 찾으신 이날 몸소 오르신 시운전중이 있는 승강기에도 그의 인민사랑의 발자취가 어리어나다.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유류자동병원, 평양야방야지,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 무수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마다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는가 없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즐기차게 흐르고있다.

김 절

### 인민의

### 수호자,

### 행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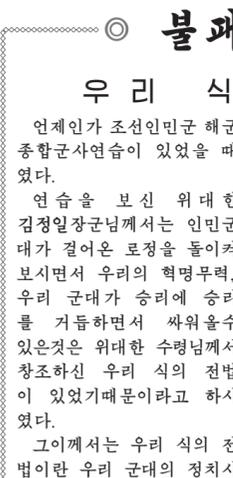
### 창조자

### 인민의

### 수호자,

### 행복의

### 창조자



과학기술전당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할상사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나라의 발전은 더디어지게 된다.

하기에 공화국에서는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이 즐기차게 벌어지고있다.

많은 대학들에서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창조형의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게 교육내용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한덕수평양형공업고대학, 청진기의학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는 과장안한 반영된 모든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실천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였다.

김책사범대학과 김철주사범대학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보급할수 있게 교육내용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한덕수평양형공업고대학, 청진기의학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는 과장안한 반영된 모든 학과목들의 교육내용을 실천능력을 키워줄수 있도록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였다.

김책사범대학과 김철주사범대학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고 보급할수 있게 교육내용에서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수많은 학교들에서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즐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일하

는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주요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었다.

자위의 군사토선을 제시하시고 전군에 일당백의 기상이 나래치도록 하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군대는 적대세력들의 모험적인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로로 창성 강화되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조국보위의 제일선에서 영웅적인 결사전을 벌리며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볼면볼류의 선군장정으로 인민군대의 부대들과 초소들, 국방공업기지들을 찾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포악무한한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분쇄하고 강토와 인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유린당하는 오늘에 현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자위적전쟁역적을 억척으로 다져놓으신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던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오늘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최정에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며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 있다.

인민군대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창성 강화된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을 모신 강군을 가진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국가발전의 전도를 깊

니었다. 그때마다 강력한 자위의 군력이 있어 적대세력들의 침략기도는 좌절되고 이 땅의 평화와 인민의 안전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게 되었다.

인민군대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창성 강화된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을 모신 강군을 가진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국가발전의 전도를 깊

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건군을 새 조국건설의 주요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천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었다.

자위의 군사토선을 제시하시고 전군에 일당백의 기상이 나래치도록 하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군대는 적대세력들의 모험적인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투대로로 창성 강화되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따라 조국보위의 제일선에서 영웅적인 결사전을 벌리며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볼면볼류의 선군장정으로 인민군대의 부대들과 초소들, 국방공업기지들을 찾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도록 하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포악무한한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분쇄하고 강토와 인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란무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유린당하는 오늘에 현실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자위적전쟁역적을 억척으로 다져놓으신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던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오늘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최정에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며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 있다.

인민군대가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범접 못하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창성 강화된것은 대를 이어 위대한 령장을 모신 강군을 가진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국가발전의 전도를 깊

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군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예로부터 백성이 군대를 먹여살리는것은 국가사회생활의 법칙처럼 되어왔다. 그러나 공화국의 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자기 행로우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왔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는다!》는 구호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열사부무하는 인민군대의 훌륭한 면모가 그대로 어리어나다. 불타던 전초기에 뿌리내린 아름드리 거목들과 재더미를 가지고 솟아난 비날론생산기지를 비롯한 창조물들, 대규모의 갑문과 사회주의담방개 변모된 공화국의 협동전야들은 창조와 건설에서도 위력을 떨치는 인민군장병들이 흘린 고귀한 땀방울들이 스며어있다.

오늘 인민의 웃음 넘쳐나는 마시평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려명거리, 양덕온천관광휴양지, 증평남새온실농장, 삼지연시를 비롯한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창조물들마다에도 인민군인들의 애국의 땀과 노력이 깃들지 않은것이 없다. 지금 인민을 위해 수도의 한복판에 선진적인 종합병원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창조대전에서 혁신의 구슬땀들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도 군인건설자들이다.

진정 공화국에서 군대의 력사는 위대한 령장의 탁월한 손길아래 인민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 자랑떨쳐온 승리와 위훈창조의 력사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했듯이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용맹과 위훈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김 춘원

면서 배우는 원격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 전민이 학습하는 열풍이 일고있다.

이처럼 교육사업에서의 부단한 발전과 혁신은 공화국을 하루빨리 교육의 나라로 발전시켜 줄것이다.

이제 강국으로 빛이아시기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제 102(2013)년 6월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작성하여야 한다고. 누구나 학습을 많이 하여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교육사업은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속에 공화국에서는 진반전12년제의 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중등교육을 비롯하여 전반적교육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다.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민들레학

습장공장, 평양시와 각 지방에 있는 개방공장들을 비롯하여 경공업공장들에서는 학용품과 가방, 교복 등 학생들을 위한 제품생산이 늘어나고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적토선을 제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하시 그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사회주의교육체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가장 훌륭한 제도와 조건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야하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의라고 강조하시었다.

참으로 교육사업을 최대의

인재는 어떻게 늘어나는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격강의실에 들리시었을 때였다.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 일꾼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망에 망라되어 공부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격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로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원격강의실에서 원격교육체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강의를 받는 정형과 강의리해정형, 시험응시정형을 비롯한 학습정형을 매 항목별로 장악하고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순위를 갈라 소개하고있는데 대한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시고 교육관리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는 교육을 현장에 접근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

### 인민의

### 수호자,

### 행복의

### 창조자

### 인민의

### 수호자,

### 행복의

### 창조자



4월 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된 평양의 모란봉극장

4월의 봄빛이 짙어가는 지금 우리 겨레의 눈앞에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인 아버지 수령님의 모습이 삼삼히 어러오고 통일만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 것 같다고 하시던 그 다정하신 음성 이 귀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인지도 모를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에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대회였다.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온 민족의 관심속에 진행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는 1000여만명의 당원과 맹원을 가진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가하였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가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 민족적대결을 벌리게 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통일에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첫 승리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민족분열의 지옥으로 일한 우리 겨레의 고통과 불행은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애국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신

아버이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하여주시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계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셨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표하신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따라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 민족변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시려는 그의 철석의 의지가 그대로 맥동치고있다.

한생을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령도로 이어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고귀한 헌신으로 빛내어주시었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바로 력사의 그날에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준비를 마무리

하시느라고 분초를 쫓으며 사업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바탕을 지새우시며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명제를 보여주시고 친필존함으로 비준해주셨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김정일동지에게 내가 문건을 비준했다고 보고하라고, 이래로만 하면 잘될 것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그 친필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력사에 남기신 마지막친필로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력사적친필은 오늘날도 그의 거룩한 혁명명예와 불멸의 업적을 숭엄히 새겨주고 온 민족을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정녕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열과 정을 강고리 쏟아부으시며 자주통일위업실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시는 또 한분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것이다.

김현일

## ◎ 백초 홍명희의 감격 ◎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4월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초청장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백초 홍명희선생은 극장 휴게실에서 자못 흥분되어 높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잠시후 휴게실문이 열리더니 만면에 밝은 웃음을 담은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활기를 넘치신 걸음으로 들어서시었다.

두손을 뜨겁게 잡아 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건강과 서울에 있는 집안형편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주시었다. 그러시고

는 이번에 련석회의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서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을 막고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우는데 대한 애국애족의 방침을 밝히시었다.

그이의 교시 한마디 한마디에는 한자씩, 한과줄을 이은 나라와 민족의 절반이 외세에게 짓밟히는 참상을 가사내시려는 뜨거운 민족애가 흘러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보살핌속에 그는 주석님에도 않고 연설자의 영광도 지니었으며 북반부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인민들의 건국열의를 뜨겁게 느끼기도 하였다.

남북련석회의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남조선에서 온 일 부 인사들이 평양을 떠나기 시작하던 주체37(1948)년 5월 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몸소 홍명희선생의 숙소를 찾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사상과 정견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련석회의 정신과 민족통일의 리념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결만이 민족재생의 유일한 길이이라고, 북남조선의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외세의 반동적

인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었다.

단결, 단결만이 민족재생의 길이요 민족통일을 얻어오는 길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그의 가슴속에 굳은 신념으로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하기에 그는 그후 북에 남아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북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을 통일전선의 기치 아래 묶어세우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을 앞당기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었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신생활계몽운동》을 시작으로

4월인민봉기후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나라가 북남으로 갈라져있고 남조선사회의 심각한 모순이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4월에 시작한 투쟁과업이 력사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였으며 이 과업을 맡아할 주체적인 세력을 꾸리고 광범한 대중을 계몽하고 각성시키는것을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웠다.

4월인민봉기후 합법적활동을 시작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학생세력 《신진회》성원들을 비롯하여 핵심적인 학생들은 새로운 투쟁의 앞길을 모색하면서 학생운동을 새로운 궤도에서 다시 불러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1960년 7월초부터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제자주정정으로 계몽시키

며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을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신생활계몽운동》이 시작되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계몽전선을 진행할것을 모든 대학들에 밝히기 위해 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은 《신생활계몽대》를 꾸리고 남조선의 134개 시, 군에 내려가 애국적계몽운동의 불을 지웠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의 이 운동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인천 등지에 있는 여러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빨리 퍼져나가 하나의 사회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농촌에서 《신생활계몽운동》을 벌려 농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신생활계몽운동》은 남조선인민운동을 옮겨 이끌고나가기 위하여 인민들을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는 애국적인

사상계몽운동이었다. 투쟁을 새로운 높이에 끌어올리기 위한 지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투쟁단체와 조직들을 꾸리는 사업이 각계층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4월인민봉기때 부상당한 서울의 학생들은 《4.19부상동지회》를 조직하였고 마산봉기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청년들은 《3.15의거부상동지회》를 꾸렸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또한 진보적인 청년단체들인 《4월학생혁명선진맹》, 《통일민주청년동맹》, 《민주민주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였다.

너성들의 새로운 투쟁조직으로서 《전국청년단체협의회》가 나오게 되었다. 남조선대학들의 진보적교수들은 《한국교수협회》를 꾸렸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당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유가족을 묶어세운 《전국피학살자유총회》도 조직되었다.

수백만명에 달하는 남조선

실업자들도 《전국실업자련맹》을 비롯한 실업자단체들을 꾸렸다.

이러한 투쟁단체들의 출현은 각계층 군중들의 정치적 각성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모든 애국적민주세력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었음을 보여준다.

청년학생운동, 로동운동, 농민운동을 비롯한 남조선인민운동은 4월인민봉기이전에 비하여 그 규모에 있어서나 적극성에 있어서 매우 빨리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학계, 언론계에서도 권력에 아부굴종하며 진리를 등지는 무리들을 배격하고 시대의 요청과 대중의 지향에 따르면서 외세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기운이 높아졌다. 문학예술계에서도 4.19투쟁정신을 이어 새 정치, 새 생활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진보적경향이 힘있게 움트게 되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내 고향》은 해방후 공화국에서 처음 창작된 예술영화이다. 이 잊을수 없는 영화의 대본을 맡아 쓴 작가가 남조선에서 살다가 공화국의 품에 안긴 김승구이다.

그가 북에 들어온것은 1946년 7월이었다.

남조선에서 창작활동을 하고있던 윤기정, 강호 등과 함께 김승구일행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당시 나라의 사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들에게 여러칸이나 되는 훌륭한 살림집들을 마련해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남반부에서 들어온 작가, 예술인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배고픈 설음도 많았었는데 우리를 찾아온 그들이 망식걱정을 하지 않게 해줘야겠다고 하시면서 온정어린 우백미도 보내주시었다.

그때로 말하면 장군님을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들도 변변한 집이 없어 합숙과 려관에 거처하고있던 때였다.

김승구는 조국해방을 위해 총 한방 쏘본적이 없는 자기에게 이토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온정에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가슴쓰린 지난날의 일들이 떠올랐다. ...망국노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1914년 7월 충청남도 아산군(당시)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출생한 김승구는 내달 나던 해에 빛을 볼지 몰지 못할까 앓아누웠던 지 오래였다. 그것이 바로 아직 세상물정을 리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렸던 천

## 공화국의 품에 안겨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을 창작한 작가

진한 소년의 눈가에 비껴든 고향의 모습이였다. 그로부터 두세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잃고 류량아의 구슬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후 불라는 학학열에 일 본에 건너가 고향을 하면서 처녀작인 희곡 《류민》을 내놓아 파문도 일으켰지만 식민지청년에게 차려진것은 지극히 못한 정역살이였다.

8.15해방의 종소리가 울려 고향에 찾아간 그의 눈에 비껴든것은 또다른 외세의 군화발에 짓밟혀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모습이였다. ...

하기에 그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펴시는 북녘에 용약 새 삶의 맛을 내리게 되었던것이다.

그가 와서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모든것은 놀라움과 감동 그 자체였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 땅과 공장, 주인이 되어 새 조국건설을 힘차게 떠밀어가고있었다. 거기 에다 북에 도착하자마자 꿈만 같은 사랑과 배려까지 받아들일수 있었다.

(아, 김일성장군님 계시는 북조선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던 내 고향이로구나!)

김승구는 자기가 안긴 진정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던 주체36(1947)년

4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 여러 작가들과 함께 김승구를 지력으로 불러주시었다.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강호 일체를 때려부시고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신

김승구 선생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너무도 겸손한 방에서, 너무도 순수한 생활을 하고계시는것이 아닌가.

그들을 정경계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항일투쟁투쟁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저녁때가 되자 식사도 마련해주시었다.

한식술과도 같은 친근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작가들은 새벽 5시까지 거의 10시간동안이나 아버지수령님으로부터 귀중한 교시를 받아들였다.

이 글의 주인공인 김승구에게 있어서 이날은 일생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영

광의 날이었으며 공화국문학 예술의 귀중한 리정표가 세워진 뜻깊은 하루이기도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김승구는 가슴속에 고매치는 흥분과 창작의 열정을 억제할수 없이 붓을 념금 들었다.

지난날 《류민》을 쓸 때의 항거와 현실부정의 붓이 아니라 잃었던 고향을 찾아준 고마운 품을 노래하고자 삼가 은 보답의 붓이었다.

어느새 원고지우에는 《고향》이라는 두 글자가 큼직하게 씌여졌다.

한식없던 그 시절 태를 묻은 고향은 있었어도 진정한 생을 준 고향은 없어 설움과 눈물로 날과 달을 보내야 했던 뼈아픈 실종이 그대로 비친 제목이었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월새없이 붓을 달려 마침내 영화문학 《고향》을 탈고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가 올린 영화문학작품의 대목대목을 읽어가시며 되물어주시었고 영화에 담아야 할 기본사상과 구체적인 장면이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고향》이라는 제목이 많은데 이 영화의 제목은 《내 고향》으로 탈자고 교시하시었다.

내 고향!

몸집어볼수록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제목이었다. 그 나날 김승구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예술영화 《내 고향》 창작지도를 받는 영광도 받아안았다.

《내 고향》영화제작이 한창이던 어느날 촬영소에 몸소 나오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작가를 비롯한 창작인들을 만나주시고 의상과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그후에도 어머니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소에 나오시어 예술영화 《내 고향》이 아버지수령님의 의도와 인민들의 사상감정이 정확하게 반영된 훌륭한 영화가 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 과 김정숙어머님의 지도밑에 영화를 완성하던 나날은 김승구의 작가적성장에서 더없는 밑천으로 되는 잊을수 없는 날들이었다.

공화국의 영화문학사에 빛나는 첫 페이지를 장식한 예술영화 《내 고향》은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후 그는 영화문학창작위원회(당시)의 위원장사업 하에서 창작활동을 계속 하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승구는 종군작가로서 서울, 수원, 대전을 거쳐 탁동강까지 달려다니며 취재활동을 벌리고 글을 썼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고향을 뒤에 두고 고한 행군길을 걸어 북으로

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작고, 예술인들이 훌륭을 익고 신발도 변변치 못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도 공화국의 품을 찾아온것은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김승구에게 있어서 이 나날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만 민족과 자기 자신의 운명도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한 잊을수 없는 날들이었다.

전후에 그는 국립예술극장 총장, 교육문화성 예술극장 등의 직무를 령임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열리는 작가대회, 청년학생축전에도 참가하였다.

김승구는 책임적인 지위에 서 많은 작품들을 창작한 이름있는 작가였고 일생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인간이었다.

《심장은 거짓을 모른다. 손끝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쓰자. 심장이 달아오르고 무익하기 전에 의무감이나 명예욕에 떠밀려 붓을 들지 말자.》

이것이 그가 간직한 창작적신조였다.

그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빨치산치녀》, 《춘향전》, 《새날이 보인다》,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등의 영화문학을 려이 발

표하였다.

그는 고향이 되도록 일기쓰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시, 소설, 가극 등 문학예술과의 활발한 접촉과 다양한 생활과의 부단한 교감을 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녀령기와 더불어 식어가는 감수성과 투쟁한다. 어린애와 같은 티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생활을 느끼고 그것을 하나하나 가슴깊이 간직하지 못하는것은 글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슬픈 일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80개에 이르도록 원고지우에 창작의 붓을 줄기차게 달리며 영화문학 《춘향전》(백인영화 합작), 《달매와 범다리》 등을 내놓았다.

그가 로망의장하여 많은 영화문학을 창작할수 있는것은 그 자신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었다.

그가 60나이를 바라보던 때인 1970년대초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그를 곁에 부르시어 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경험을 주시고 축배잔까지 부어주시며 올해에는 꼭 예술영화 두편을 받아내겠다고 반백이 된 그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크나큰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그는 창

작적지혜와 열정을 기울여 예술영화 《보통강변에 깃든 이야기》(1, 2부)를 완성하였다.

주체61(1972)년 3월 25일 친히 작가를 불러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의 구성을 회상적으로 바꿈에 대한 묘안을 찾아주시고 생활전개의 대안들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후에도 김승구는 예술영화 《춘향전》 창작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또다시 받아안게 되었다.

이렇듯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수고를 헤아리시어 국가적인 큰 대회를 통해 아버지수령님 탄생 60돐, 70돐 경축연회를 비롯한 영광의 자리에 그를 빠짐없이 불러주시었다. 또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를 안겨주시고 그의 일흔번째와 여든번째 생일에는 사랑의 생일상도 보내주시었다.

늙었다고 물러설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께서 책임지고 끝까지 대려가셨으니 힘을 내야 한다고 고무해주신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과 믿음속에 김승구는 언제나 청춘의 열정으로 여생을 보낼수 있었다.

봄날처럼 싱싱한 열정과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고 한생을 빛내어온 작가 김승구. 그는 생의 마지막나날에 이런 글을 남기었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태를 묻고 나서 자란 곳만이 아니다. 인간의 삶을 참담게 빛내여주는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진정한 내 고향이다!》

본사기자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동족대결의 화약내를 질게 품고있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동족대결의 화약내를 질게 품고있다. 얼마전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에서 록, 해, 공군의 지원밑에 해병대 합동상륙훈련이라는 것을 벌린것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합동상륙훈련은 상륙함에서 출발한 해병대와 상륙돌격장갑차들이 직승기들의 엄호밑에 연막탄을 터뜨리며 해안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군부는 이번 훈련은 해병대와 록, 해, 공군의 합동상륙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년례적인 훈련이다, 훈련은 민간인출입이 통제된 훈련장에서 방역대책을 세우고 진행되었기때문에 장병들의 안전은 철저히 보장되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한편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의세와 합동하여 5일간에 걸친 연합공중훈련이란것도 강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지난 20일부터 2주 일간 남조선강원도

린계군에 있는 훈련장에서 4 5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야외전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사태로 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미 계획된 군사훈련들을 무기한 연기, 중지하고있는 형편이다. 남조선에서도 《COVID-19》 사태가 지속되는것으로 하여 군사훈련을 걸어치울데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은 민심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북침전쟁의 화약내 풍긴다. (포항앞바다에서 진행된 해병대 합동상륙훈련)

남이야 죽든 살든

얼마전 남조선이 미국협상단과 《잠정합의》 하였던 방위비분담금안을 미행정부가 거부하여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저들의 눈에 성치 않는다고 미국이 걸어차버린것이다. 이번엔 남조선당국이 미국측과 《잠정합의》 하였던 《13%인상안》이라는것은 남조선자체도 역대 최악의 협상이라고 하였던 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 인상률을 대폭 통가하는것으로 10억US\$수준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마저도 거부하면서 거액 40~50억US\$의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기 위해 4월 1일부터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군부하는 남조선로동자 4 000여명에 대한 무규제직을 강행해 나갔다.

지금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지연으로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지급할 비용이 없다고 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이고 생떼이다. 남조선주둔미군이 사용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예상초 쓰이는 액수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돈이 남았다고 한다. 남조선인론들이 밝힌데 의하면 남은 돈은 무려 2조원이상이다. 이만한 돈이면 남조선로동자들에게 수년동안 비용을 지급하고도 남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돈으로 은행에서 리자놀음을 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략취하면서도 돈이 없다고 우기고있는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저들의 요구수준에 맞게 올리지 않는다면 4 000여명의 남조선로

동자들의 명줄을 끊겠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잉어도 먹고 나중에는 너구리까지 잡아먹겠다고 하는 우화속의 승냥이의 행태와 신통히도 같고같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인터넷들에 방위비분담금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인로동자를 볼모로 삼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강요하는 미국은 남조선에서 나가라》, 《동맹이나, 강대나?》라는 분노의 글들이 차남치고있겠는가. 줄수록 남남이리고 남야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모든것을 독차지하려는 미국과 이것저것 섬겨바치며 아무굴종만 하는 남조선사이어 어디까지나 상전과 하수인이기 일뿐이다. 이러한 종속관계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대로 수치의 굴욕, 불행뿐이다. 리서철



남조선 법원

이전 로조단체 성원에게 징역형 선고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법원당국이 20일 전 민주로총소속 건설로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건물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

남조선인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민중민주당소속 성원들이 20일 서울의 대공분실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보안수사대 해체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권력의 총검노릇을 한 보안수사대가 아직도 가장스럽게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민중을 탄압하는 기구인 보안수사대의 청산은 더는 미룰수 없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4.19 봉기정신을 이어 초불민의를 실현할것이라고 주장

남조선인 인터넷신문 《자유시보》에 의하면 청년세대가 19일 4.19인민봉기가 일어난지 6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60년전 민주화를 위해 리승만독재 《정권》의 총칼에 피흘리고 목숨을 잃

으면서 싸운 4.19봉기정신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고 밝혔다. 보수적세력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려는것이 초불민의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적세력들이 벌써 부터 정치적반격의 기회를

엿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질적폐청산을 위해 모든 진보민주개혁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면서 부정부의에 맞서 항거한 4.19정신을 이어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야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가 초상집진세가 된 《미래통합당》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정치일선에 다시 나서 보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고있다고 한다. 홍준표는 지금 매일같이 《미래통합당》이 오늘처럼 처참하게 짓이겨진것은 황교안과 같은 《드래기》, 《초년생》들이 주인공을 하며 《따가》는 공천, 《감동없는 선거운동》을 벌린데 있다고 하면서 이에 동조하였던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재의 당지도부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보수패거리들속에 변절한 인물이 없으니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사람들로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있고있다. 한발 더 나아가 자기는 《국익》을 우선시 한다는데, 진보나 보수와 같은 대립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하며 속대에 오른 민중이 마냥 으시라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은 홍준표의 집요한 권력야심이 다시 세차례 발작하였다는

말하고있다. 원래 홍준표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것도 가리지 않는 권력미끼광이다. 1996년 《문민》 독재자 김영삼에게 가들어 《국회》의

때담내에서도 저주와 비난을 받았으며 2018년 6월에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대패를 당한 책임을 지고 정계에서 수직스럽게 은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 홍준표는 《복당》을 허용할수 없다고 하는 《미래통합당》 내의 여론에 대해 《복당문제가 논쟁이 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하고 무례한 일이다.》, 《이제 다시는 쓰러지지 않겠다.》며 런일 목적을 둔구어대고있다. 《미래통합당》이

자기를 《개성장군》처럼 환영하며 받아들이라는 소리이다. 호랑이없는 동산에 시라소니 날치는 격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홍준표가 보수패거리들의 새우두머리가 되어 거어이 《대권》 야망을 실현해보려 하지만 과연 뜻대로 되겠는가 하거나 조롱하고있다. 미꾸라지가 암만 뽀뽀를 꾸어도 미꾸라지일뿐이다. 오래전에 홍준표에게 《홍미꾸라지》라는 별명을 달아주었던 남조선민심의 눈이 참 정확하다. 강현철

확대되고있는 《COVID-19》 피해, 그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

세계적으로 《COVID-19》 감염자 263만 4 900여명, 사망자 18만 4 028명

《COVID-19》가 210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전파되고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22일 24시현재 세계적으로 263만 4 918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8만 4 028명이 사망하였다. 에스빠냐의 감염자수는 20만 8 389명, 사망자수는 2만 1 717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각각 4 211명, 435명 더 늘어났다. 이탈리아에서 감염자수가 18만 7 327명으로 이르렀다. 사망자수는 437명 증가하여 2만 5 000명을 넘어섰다. 프랑스에서도 《COVID-19》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수가 2만 1 340명에 달하였다. 도이쾰란드에서는 2 237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되어 그 수는 14만 5 694명으로 증가하였다. 영국에서 13만 3 495명의 감염자와 1만 8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감염자수는 하루사이에 4 451명 더 늘어났으므로 된다. 벨지크에서 4만 1 889명, 네델란드에서 3만 4 842명, 스위스에서 2만 8 268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었다. 튀르키예에서 하루동안에 3 083명이 비루스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감염자수는 9만 8 674명으로 증가하였다. 사망자수는 모두 2 376명이다. 이란에서도 1 194명이 감염자로 새로 확진되었다. 이 나라의 총적인 감염자수는 8만 5 996명, 사망자수는 5 391명이다. 일본의 감염자는 1만 2 703명, 사망자는 308명이다.

미국에서 《COVID-19》 감염자수 84만여명으로 증가

미국에서 22일 현재 《COVID-19》 감염자수가 84만여명으로 이르렀으며 그중 4만 6 611명이 사망하였다. 뉴욕주에서는 26만 3 000여명의 감염자와 1만 9 000여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뉴욕시의 사망자수는 1만 5 000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 방역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해 언급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22일 화상보도발표모임에서 《COVID-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들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부분 나라들에서 《COVID-19》 전파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먼저 전염병피해를 입은 나라들에서 또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 전염병이 장기간 존재할것이며 아직 같은 멀다 하고 하면서 그는 많은 나라들이 방역조치들을 취한것으로 하여 《COVID-19》의 전파가 억제되고있지만 이 비루스는 의연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자

만이라고 하면서 감염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격리치료를 하며 접촉자들을 추적, 격리시키는것을 방역사업의 근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역사업이 일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잠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울사5조약》 날조를 통한 일제의 남강도적인 조선강점점은 조선민족의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그것으로 하여 전근대적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독립운동이 맹렬히 벌어졌다. 당시 조선민족이 벌린 반일독립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조선민족의 반일기세를 억누르고 민족적독립에 대한 희망을 영영 없애버리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특히 반일에극력양인 병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당시 반일의병투쟁은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었으며 병들은 도처에서 일제수비대와 헌병, 경찰관들을 습격하여 왜놈들을 처단하였으며 통치기관들을 파괴하였다. 조선민족의 반일의병투쟁은 1907년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퇴위와 조선군대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더욱 양양되었다. 일제는 조선군병력이 반일의병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반일항전의 조직적력량으로 될수 있다는 공포감으로부터 갖은 모략술에 조선군대

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일제의 조선군대강제해산책동에 참출수 없이 조선인민들은 반일폭동을 일으켜 일제침략자들과 완강히 맞서 싸웠으며 대부분이 의병부대에 합세하였다. 당시 초대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장교들에게 통감통치에 방해로 되는 조선의병을 지방소요의 주범으로 취급하며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에 따라 일제는 의병들을 《폭도》로 묘사하면서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까지 거여들어 의병부대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감행하였으며 지어 의병들이 지나간 마을을 모조리 불사르고 의병들과 관련계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총살하였다. 더우기 일제는 반일의병들에 대한 탄압을 조선에 주둔시키고있던 저들의 무력만으로는 해낼수 없다고 하면서 본국으로부터 보병 12려단과 보병 32려단, 27려단을 새로 끌어들이었다. 이러한 침략무력증강으로 하여 일제의 야수적인 의병투쟁탄압책동은 더욱 강화되게 되었으며 1907년 8월이후부터 절정에 달하였다. 이 시기 전라도지방의 의병들에 대한 일제의 토벌작전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전라도에서 의병투쟁이 활발히 벌어지자 일제는 1908년 8월부터 《남부조선대표보설시계획》이라는 《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 작전수행을 위해 《토벌》구역과 기간, 병력, 방법, 수단 등에 이르기까지 47개 조항으로 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남부조선에 주둔하고있던 일제침략군 탐시과편대를 주력으로 하고 여기에 6사단 공병소대와 헌병, 경찰관들을 더 증가시켰었다. 일제는 저들의 무력적 《경비부대》와 《행동부대》로 나누어 《경비부대》는 포위선을 형성하고 중요거점들을 지키고 있었으며 《행동부대》는 포위선안에는 의병들과 인민들에 대하여 야수적인 학살과 검거를 감행하게 하였다. 일제는 그해 9월 20일경까지 1기 《토벌》구역에 대한 《토벌》작전을 끝냈으며 이러한 《토벌》작전을 전라도지역에서뿐아니라 도처에서 벌리었다. 일제는 의병들에게 《폭도》, 《무뢰한》 그리고 의병장들에게는 《폭도의 피수》 등의 딱지를 붙여 그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일제는 1910년 11월 당시 황해도, 함경도, 경상도일대에서 반일의병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대규모적으로 벌리고 수많은 의병들과 애국진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집단적으로 총살하다 못해 때려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등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일제는 1906년부터 1911년까지 6년동안에만도 2 000여회의 《토벌》을 감행하여 17만 명이상의 의병들과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온 강토를 피비린내나는 생지옥으로 만든 일제의 학살만행은 계획적인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이었다. 우리 민족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난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일독립운동에 떨쳐나선 의병들과 애국자들,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 학살한 일제의 극악무도한 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독특한 요리, 친절한 봉사

- 요리축전장에서 -

평양의 려명거리에 있는 요리축전장은 언제나 손님들이 줄지어 찾는 곳이다.

식탁을 마주한 화기에 넘친 얼굴들이며 정반죽수를 받아내고 웃음짓는 로인내외, 민족의 향취가 짙은 신선로의 진미를 느끼는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축전장의 어느곳에서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요리축전장이 손님들이 즐겨 찾는 봉사기지로 될수 있는 것은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요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봉사자들이 아라랄 글 노력한 결과라고 한다.

지난 시기 이곳 요리축전장에서는 평양시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온 우수한 요리사들이 자기들의 솜씨와 요리기량을 과시하는 요리경연들이 수없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눈맛, 입맛으로 특색을 이룬 전국집단지전대회, 전국민족음식전시회, 평양시안의 봉사단원들과 가정주부들의 김치경연과 같은 각종 요리경연, 전시회들은 이곳 요리사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요리기량을 높이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요리축전장의 요리사들은 국수의 질과 신선로의 고유한 맛을 살리기 위해 육류판을 비롯하여 여러 봉사기지를 찾아다니며 경험을 배우면서 요리 기술을 높여나갔다. 이들은 요리의 가지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지혜를 합쳐나갔고 봉사원들도 봉사성을 높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곳 요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요리축전장에서는 자기 식당의 특색이

살아나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성의껏 봉사할수 있게 되었다. 이곳을 찾은 대성구역의 한 주민은 오늘 훌륭한 요리를 맛보았다. 인민을 위한 이곳 봉사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음식이어서 더욱 별맛이었다고 말했다. 이곳 요리축전장을 다녀간 사람들은 봉사자들의 친절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잊지 못해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오늘 세계적인위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하여 생물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있다. 이런 속이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이 동경도를 따라 수백종에 달하는 수천만마리의 물새들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철새와 그 서식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새(습지)보호구, 바다새보호구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보호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람사르대습지)로, 동아시아-오세안주철새이동경로대습지로 선정된 문덕철새(습지)보호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이동성물새들의 서식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위치에 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다.

## 관심을 모으는 문덕철새(습지)보호구

이행하면서 서식하고있다. 평안남도 문덕군의 문덕철새(습지)보호구는 청천강과 대령강하구의 만에 위치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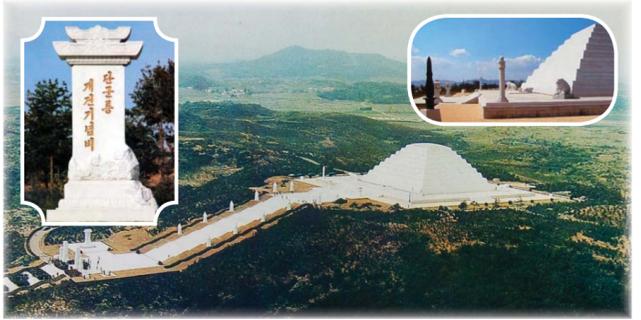
해마다 봄가을철이동시기가 오면 문덕철새(습지)보호구의 간척지, 총적섬, 함락지, 논밭들은 국가천연기념물인 흰두루미를 비롯하여 기러기류, 도요류 등 120여종의 8만마리이상의 물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든다.

최근에만도 문덕철새(습지)보호구에서는 전지구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가 30여마리나 관찰되었다. 따오기파에 속하는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에 달한다. 공화국의 문덕철새(습지)보호구는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물새종들의 1%이상이 정기적으로 리용하는 지역으로서 습지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의 하나인 《람사르협약서기국》이 제정한 람사르기준 6에 포함된다.



본사기자

## 관공릉



단군릉은 강동군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무덤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찾아주시려고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투철한 주체적력사관에 의하여 오래 동안 사람들의 관심속에 있던 단군릉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1993년 2월에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발굴되게 되었다.

현재나 주체적립장에서 서서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깊이 통찰하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단군유골의 발견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체를 정확히 밝힐수 있도록

최신기술수단과 기술력량을 아낌없이 보장해주셨다. 그리하여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굴당시(1993년) 5011(±267)년 전에 태어난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단군의 유골이 발굴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원시조를 찾거나 짐을 먹지 않고 지내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오랜 력사국이 되며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에서 처음으로 선진 문명에 들어선 문명한 민족이라는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평양은 우리

민족의 성지이며 우리 민족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 왔다는것을 립증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함 정도에 의하여 단군릉은 주체83(1994)년 10월 우리 민족의 시조릉답게 훌륭히 개건되었다. 웅장하게 개건된 단군릉은 연건평 45정보의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있으며 정4각추모양으로 9단의 계단식돌무덤으로 축조되었다. 룡을 9층으로 쌓은것은 우리 선조들이 고대하고 그 이후 시기에 무덤을 돌로 만들거나 여러개의 계단을 지어 쌓았던 전례를 살린것이며 9라

머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것은 조선식의 인사법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절로써 인사례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절은 대상과 장소에 따라 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절에서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는 서로 머리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나누었지만 로인이나 웃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존경의 뜻을 담

##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

아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인사례절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허리를 굽혀 례의를 표하는 조선절은 몸가짐이 정중하고 그에 따르는 인사말이 따뜻하며 얼굴표정이 부드럽고 정다운것으로 하여 그 어떤 인사법과도 대비할수 없는 고상한 인사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았다. 우리 민족의 인사법은 단정하고 위생적이며 례절바른 것이 특징이다.

세상에는 웃사람, 아래사람에 관계없이 손을 마주잡

는것, 이마를 맞대거나 코를 맞대는것, 입을 맞추는것 등 여러가지 인사법이 있지만 조선절처럼 도덕적으로나 문화유생적으로 흠잡을데 없는 인사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 고구려의 사냥풍습

고구려무덤벽화에는 사냥대상으로 범이 많이 그려져있는데 날래고 용맹하여 못짐승들의 으뜸이라고 하는 범을 사냥할수 있는

것은 고구려사람들의 담대한 기상과 용맹, 뛰어난 기마술과 사냥술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에서는 무예에 특출한 인재선발과 무술장려의 좋은 계기로 삼기 위하여 해마다 전국적인 사냥경

을 치렀다. 고구려사람들은 사냥을 단순한 생업으로만이 아니라 능란한 기마술과 사격술, 억센 힘과 뛰어난 지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며 변방방비를 강화하며 무력을 시위하는 군사목적과 결부시켰다.

황일승

## 사화

### 연안성의 쇠돌이 (2)

글 박태원, 그림 채대성

왜병들이 동문밖으로 쳐들어온것은 그로부터 보리밥 한술 짓기가 채 못되어서였다.

예측한대로 왜적은 동문밖에만 진출을 천적이 아니라 관사를 나누어 서문, 남문, 북문밖에도 진출 쳐서 4대문을 일시에 들이칠 형세를 취하고였다.

적은 실로 만명에 가까운 대군이였다.

이때 연안성안에 있는 우리 군사는 관군까지 합쳐야 모두가 천수백명, 백성들도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다 천대야 수천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평시에 대장 리정암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침노하여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들을 죽이고있는 왜적은 곧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우리 고장을 지키자.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한다. 왜적이 제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기만 하

면 조금도 두려울것이 없느니라.》는 말을 자주 들어 연안성의 군사와 백성들은 그렇듯 적의 대병력이 쳐들어온것을 보고도 결코 놀라거나 겁을 먹지 않고 저마다 원수에 대한 끝없는 중오와 적개심에 불타오르고있었다.

5리밖에 분영을 둔 작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왔다.

적들은 성우를 향하여 일시에 조총을 쏘기 시작하였다.

성안에서도 연방 화살이 밖으로 날았다.

동쪽장대우에서 총의를 다하여 왜적을 치자는 뜻을 담은 《분총토적》이라는 네글자가 씌여진 큰 자주빛기 폭이 펄펄 바람에 휘날렸다.

대장 리정암은 그밑에서 련달라 화살을 쏘았다.

그의 활재주가 신통해서 화살 한개에 왜병 하나씩 꼭꼭 거꾸러졌다.

일반사수들이 쏘는 화살도 빛나가는것보다는 바로 들어가는 화살이 더 많

았다.

그러나 원래 사수들을 4대문에다 각각 버려놓았기때문에 기세가 크게 오르지를 못했다.

이것을 본 왜적은 의병들을 더욱 우습게 알았던지 맹렬한 엄호사격아래 머리에 흰수건을 질끈 동이고 허리를 칼을 지르고는 와-소리를 지르며 성 밑으로 물러들어왔다.

이를 보자 쇠돌이는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웨쳤다.

《을지, 가까이만 오너라!》

쇠돌이는 적과의 거리를 삼백보나 되고보니 돌팔매를 할수도 없어 그사이 돌만 골라다가 자기앞에 수북이 쌓아놓고 버려던 참이었다.

그는 번개같이 돌을 집어들고 달려드는 왜군의 앞방을 쇠돌이로 덮어 버렸다.

허우대 큰 놀이 바로 미간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쇠돌이는 신이 나서 연방

돌팔매를 쳤다.

이때 성 밑으로 달려드는 왜놈들이 개미떼처럼 성벽에 새까맣게 붙어서 성우로 기어오르고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줄을 미리 예측하고 훑어둔 기름과 물을 손 나는 사람은 군사이건 백성이건 저마다 변질나건 성우로 퍼날랐다.

힘이 황소처럼 쇠돌이는 서너사람이 함께 들어 날

라야 할 큰 기름독과 물통을 혼자 번번씩 들고 성우로 올라와서 기여올라오는 왜병들의 머리에 한바가지씩 열량을 들어부곤 하였다.

《악!》

《으악!》

여기저기서 외마디소리

를 지르며 왜병들은 성벽에서 내리굴러 죽고 상하는자가 삼시간에 수백명이나 되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왜적은 군사를 거두어 5리밖에 있는 저의 분영으로 물러갔다.

리정암은 령을 내려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하고 군사들은 기할만 남게두고 제자리에서 눈을 붙이게 하였다.

이윽하여 나무와 풀쑤음을



김룡철



고구려시기 사냥그림과 모사선화 (약수리벽화무덤그림중에서)

## 윤리(도덕)의 화

### 량반의 쇠절

어느날 신재효는 친구와 함께 저자거리에서 갖을 사게 되었다.

그는 한사람에게 물었다. 《갖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 윤리(도덕)의 화

### 량반의 쇠절

어느날 신재효는 친구와 함께 저자거리에서 갖을 사게 되었다.

그는 한사람에게 물었다. 《갖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팔려고 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